소설가 오경훈을 그리다 서른셋 '귤림문학' 발간

귤림문학회가 '귤림문학' 2025년호(통권 제33호)를 펴냈다.

오현고등학교 출신 문학인들이 중심이 돼 1990년 창간호 이후 꾸준히 발간돼 온 '귤림문학'은 이번 호에서 지난해 작고한 소설가 오경훈을 특집으로 조명하고, '제주의 돌'을 주제로 한 시·소설 등 작품들을 함께 담았다.

이밖에도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남훈문학관 탐방기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성주 귤림문학회장은 "혼란의 한 해였지만 사람들의 삶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열매를 맺혔고 수확을 해냈다"면서 "문학회 회원들의 지성이 빛을 발했고, 작품을 통해서 시대를 조망했고 삶을 노래했다"고 전했다. 김채현기자

아이와 함께하는 동화여행 한수풀도서관 참가자 모집

한수풀도서관이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아이와 함께하는 동화여행'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3~5세 유아와 부모가 한 팀이 돼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과정으로 매주 일요일 이주연 책놀이지도사의 지도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식물 키우기·감정 표현·상상 놀이·예술 활동 등 다채로운 오감 체험을 접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자연·감정·꿈·계절 이라는 4가지 주제 탐색을 통해 일상 속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참여 모집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진행된다. 대상은 유아 가족 7팀이다.

한수풀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동화여행이 단순한 수업을 넘어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채현기자

"더 나은 민주주의" 문학인들의 고민

제주작가회의 집담회
오승국 "4·3때 정의 군인·경찰 재조명을" 친밀함의 비민주성도

지난 22일 제주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제주작가회의와 한국작가회의가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제주작가회의 제공

한국작가회의가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부터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발생한 상황 속에서 문학작가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작가의 시선으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파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시작된 집담회는 서울에서 두 차례 진행한 후 대구, 부산, 대전 등 지역으로 이어졌다.

제주의 문학인들도 이 같은 '고민의 시간'을 안았다. 지난 22일 오후 제주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제주작가회의와 한국작가회의가 함께 연 여섯 번째 집담회에서다. 이번 제주 집담회에서는 두 가지 발제와 토론을 통해 4·3 당시 정의를 실천한 군인과 경찰을 재조명하는 한편 민주적인 친밀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승국 시인은 '4·3항쟁, 그 역사의 길에서 정의로웠던 사람들'이라는 발제를 통해 "4·3 당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석호 하사,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의 무고한 희생을 자신의 권한으로 막았던 문형순 성산포 경찰서장은 역사와 정의를 추구한 진정한 군인과 경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4·3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처절한 반성의 지표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인은 "최근 4·3 기록이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돼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인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21세기 평화의 섬 제주'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양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현지 평론가는 "4·3 항쟁 속에서 정의로운 선택을 했던 인물들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현재로 불러내고 있다"며 "역사에서 지워진 정의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박다솜 평론가는 '친밀함의 비민주성'이라는 발제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친밀함과 애정의 영역에는 서열 문화가 깃들어 있다"며 "우리는 친해질수록 자유를 잃고 속박된다. 민주적인 친밀함을 창안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과제여야 한다"고 했다. 김동현 평론가는 토론에서 "언니나 이모 같은 호칭이 친근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정해진 위계와 역할을 강요하며 관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은 결국 비민주적 위계의 폭력이 '가족주의' 혹은 '친밀함'이 뒷면에 드리워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표류하는 것들의 만남"… 전통 회화의 확장

한경원 개인전 '플로팅 포탈'

제주시 한림읍 금악목장길에 있는 청유갤러리는 한경원 작가 초대개인전 '플로팅 포탈 : 폴리_옥시_로그(FLOATING PORTAL : Poly_Oxy_Log)'를 열고 있다.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한국 전통회화의 구조와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회화를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실행되는 사건'으로 확장해 온 작가다.

작가는 괘불, 병풍, 족자 등 전통회화가 지닌 '접고 펼쳐지는 구조'와 그 안에 내재된 이동성과 임시성에 주목하고 이를 오늘날의 물질과 환경 속에서 다시 작동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전시에선 레진, 설치, 디지털 작업을 통해 회화를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실행되는 사건'으로 확장해 온 작가의 실험이 담긴 작품 25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표류하는 것들의 순간적인 만남이 일으키는 하나의 실행"이라며 "투명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서로에게 닿을 때, 이는 또 다른 미완의 상태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한경원 '두둥파'

전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박소정기자

영화觀 광장

빛의 통로

영화 '광장'

고독과 고립은 모두 외로울 고(孤)자를 쓴다. 고독해서 고립된 상태에 머무르는 건지 고립됐기에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생각만으로도 마음에 찬 바람이 부는 단어들이다. 아무리 움직여봐도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 같은 이 쓸쓸한 단어들이 품은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매일 마주치는 내 사소한 외로움들이야 한겨울 흘러 내리는 콧물처럼 닦아낼 수 있지만 경험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타인의 먼 외로움은 녹을 수 있을까.

김보솔 감독의 장편 데뷔작 '광장'은 시리도록 아름다운 장면들과 뜨거운 감정의 밀도로 채워진 애니메이션이다. 북한 평양으로 파견 온 스웨덴 대사관의 서기관 보리는 평양 시민인 교통보안관 복주와 사랑에 빠진다. 늘 감시 당해야 하는 이방인인 보리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복주의 사랑은 발각되기에 이미 너무 쉬운데 심지어 보리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감시하는 통역관 명준이 있다. 보리에게 사랑하는 복주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이고 언제나 자신 곁에 있는 명준은 멀게만 느껴지는 타인이다. 세 사람은 각자가 가진 외로움으로 서로의 삶에 마찰을 일으킨다.

사랑은 분명 온기의 감정이다. 이 불가사의한 감정은 서로 다른 타인 사이의 거리를 가장 빠르게 녹일 수 있는 외로움의 처방전이 된다. 그러나 사랑은 드러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불씨와도 같다. 한 번 불 붙은 사랑이 진화되는 과정은 결코 잠잠하거나 고요할 수 없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이방인인 보리와 체제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복주의 사랑이 한겨울 평양에서 위태로운 불꽃으로 흔들린다.

한편 명준은 뿌리 내린 이다. 그는 어떤 계절도 견뎌온 나무같이 단단한 수피를 가진 채 보리를 지켜본다. 이 임무에 다른 감정이 끼어 드는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기에 명준의 벽은 견고하고 완고하다. 하지만 그런 명준이라도 보리가 던지는 사소한 온기와 보리와 복주 사이에서 피어나는 열기를 모두 막아낼 수는 없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명준의 벽에 어느새 사소한 실금이 생긴다. 외로움조차 느낄 수 없던 명준의 미동은 금세 유효한 진동이 되고 명준과 보리, 보리와 복주 사이에 겹쳐 있던 쓸쓸한 동토를 가로 지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놓아진다.

'광장'은 78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으로 길고 깊은 체험을 하게 만든다. 체제의 이념 아래 쓸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도시 위로 낯설고 귀한 감정을 마주하는 인물들이 움직인다. 영화는 내내 조심스럽다. 북한이라는 공간의 특성도 있지만 세 인물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느껴진다.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어 나아가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보리와 복주, 명준과 보리의 관계를 찬찬히 두루 살핀다. 부수지 않고 깨어지는 틈을 기다리는 일이 애니메이션의 고행이라면 '광장'이 긴 고행의 끝에 마주한 것은 외로움을 밝힐 만큼 충분히 환하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